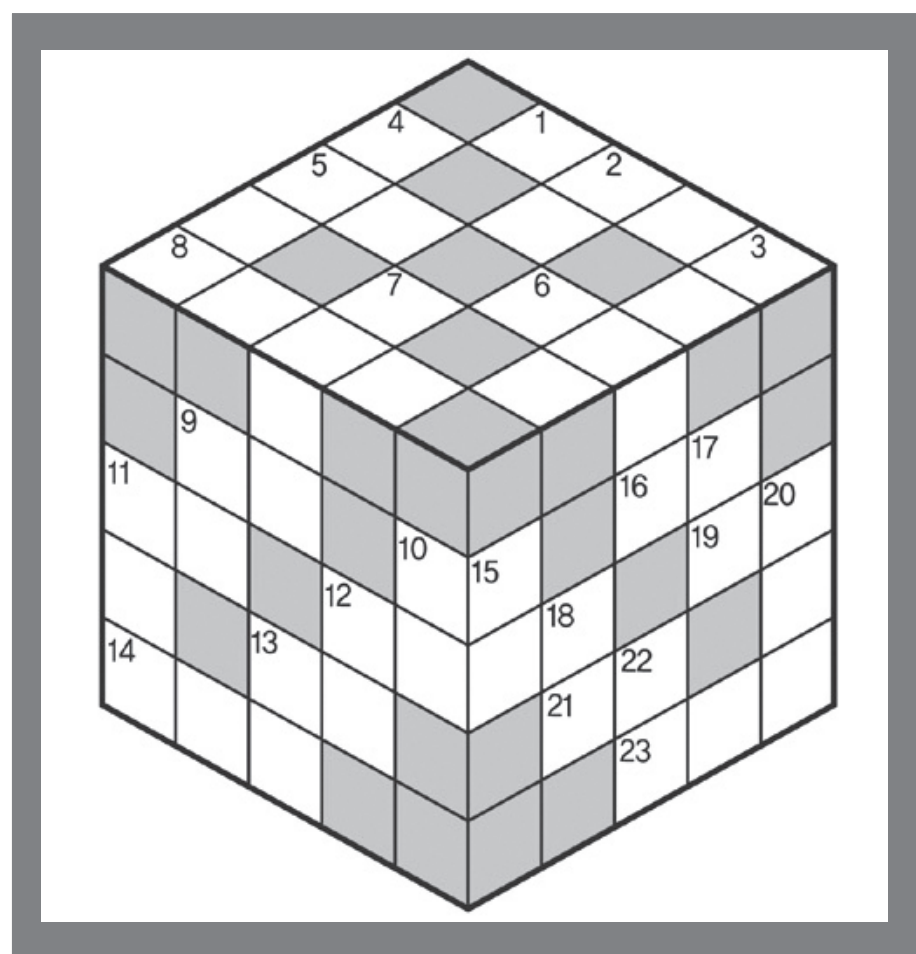


# { 심심풀이 낱말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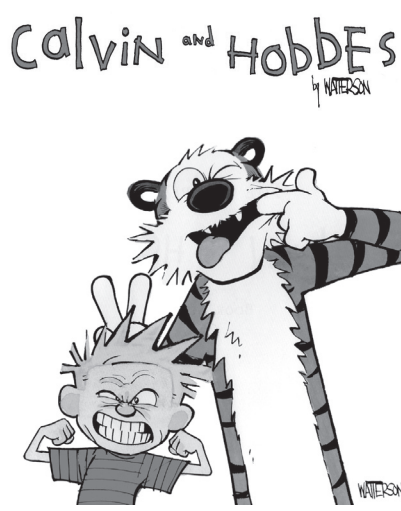
### <가로 열쇠>

- 1)비단에 수를 놓은 듯이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비유한 말.
- 5)범위 · 규모 · 세력 등을 늘려서 넓힘. 도로 ○○ 공사.
- 6)몹시 애타게 기다림.
- 8)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드리는 기도.
- 9)매우 중요한 근거지. 적의 ○○을 무너뜨리다.
- 10)푸른 빛깔의 자기.
- 11)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 12)오늘의 성인 아재 개그, 예전에 산올림이 불러서 히트했던 '아니별써' 라는 노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13)바둑 · 장기 · 무예 등에서 수가 높음. 또는 그 사람.
- 14)여럿이 기세를 올리며 악을 써 지르는 소리.
- 16)빌려 주거나 꾸어 줌.
- 19)신문 · 잡지 따위의 출판물을 읽는 사람. 스포츠월드 ○○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21)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
- 23)일 년 내내 잎이 늘 푸른 나무.

### <세로 열쇠>

- 2)상을 받음.
- 3)산은 자줏빛으로 선명하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산수의 경치가 썩 좋음을 이르는 말.
- 4)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 7)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
- 9)동기간이나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형만 한 ○○ 없다.
- 10)결혼하기를 청함.
- 11)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 12)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건강 색. ○○가 흰하다.
- 13)높은 목소리.
- 15)아들의 아내. 며느리.
- 17)여행을 해서 생긴 병이나 피로.
- 18)본업 외에 따로 갖는 직업.
- 20)바둑에서, 자기 돌을 자기가 지은 집 안에 놓아 스스로 자기의 수를 줄이는 일을 이르는 말. ○○○를 두다.
- 22)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정답은 B면 11페이지에..



## 오늘의 역사 (2003년 8월 14일) 미국-캐나다 동부 대규모 정전 사태



뉴욕 등 미국 북동부와 토론토 등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14일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뉴욕 등 대도시의 도시 기능이 한동안 마비되는 위기를 겪었다.

15일 아침 현재 전기 공급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정전 사태는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나이아가라폭포 인근 지역에서 시작돼 미국 뉴욕·뉴저지·코네티컷·매사추세츠·버몬트주 등 북동부 지역과 미시간·오하이오주 등 중서부 지역,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으로 번져갔다.

이번 정전으로 해당지역 주민 약 5000만명이 불편을 겪었으며, 뉴욕시민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미국 내 5개 공항과 캐나다 2개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한때 금지됐으며, 미국 내 4개 주의 9개 원자력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뉴욕 증시는 정전 직전 장이 끝나 피해가 없었다. 캐나다 오타와와 뉴욕 브루클린에서 산발적인 약탈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전을 틈탄 무질서는 거의 없었다.

사진설명: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한 2003년 8월 14일, 석양을 배경으로 미국 뉴욕시내가 암흑 속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정전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하고 놀란 주민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 그해 오늘 무슨일이...(8월 14일)
- 2015년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 2010년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세계 프로야구 최다연속경기(9회) 홈런 기록 수립
  - 2005년 8·15 민족대축전 남·북통일축구경기
  - 2005년 민족대축전 北대표단 국립현충원 참배
  - 2005년 한산대첩 학익진 413년만에 재현
  - 2000년 남북, 서울-판문점-평양 첫 광통신망 개통
  - 2000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4년 만에 재가동
  - 2000년 '원곡체' 창안한 서예가 김기승씨 별세
  - 1999년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전장 16km)완공
  - 1998년 대한민국 50년 '우리들의 이야기전' 화려한 개막
  - 1994년 불가리아의 소설가 카네티 사망 - 1981년 노벨문학상 수상
  - 1989년 국사학의 태두 이병도 박사 타계
  - 1989년 보타 남아공 대통령 사임
  - 1989년 트랜지스터 개발한 공학자 윌리엄 쇼클리 사망
  - 1989년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취임
  - 1988년 문성길 WBA 밴텀급 세계챔피언 획득
  - 1986년 파키스탄서 정치폭동. 야당총재 부토 체포
  - 1986년 서진롭살롱 집단살인 사건

## Quote 영어 문장을 완성하라

Rearrange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quotes.

MOVING WALK FLY CRAWL WALK KEEP

"If you can't \_\_\_\_\_, then run. If you can't run, then \_\_\_\_\_. If you can't \_\_\_\_\_, then \_\_\_\_\_, but by all means, \_\_\_\_\_."

-Martin Luther King Jr. 정답은 '이주의 영어한마디' 맨 밑에..

## 소떼가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주의 영어 한마디

는 모습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 소들은 본토 태생 토박이가 아니라 (be not native inhabitants of the mainland) 폭풍우에 휩쓸렸다가 8km를 헤엄쳐 건너온 섬 출신으로 밝혀졌다.

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는 물에 뜨게 돼 있고, 물에 뜨면 수영을 하게 돼 있다고(float and swim) 한다. 어미에게서 수영을 배우는(learn to swim)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다(can do so from birth). 개만 개헤엄을 치는(do the dog paddle) 것이 아니라 고양이나 양의 경우에도 물은 싫어하지만(despite their dislike of water) 생사가 달린 비상 상황이 닥치면(confront a life-and-death emergency) 나름의 방법으로 헤어나간다.

그런데 인간과 비슷하다는 짐팬지와 고릴라는 수영을 못한다. 다른 포유류는 물에 뜨면서 코가 자연스레 물 밖으로 나오는데, 유인원(anthropoid)은 코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간은 입을 밖으로 돌려 숨을 들이마시는(breathe in) 방법을 배우지만, 짐팬지와 고릴라는 새끼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

Answers: "If you can't fly, then run. If you can't run, then walk. If you can't walk, then crawl, but by all means keep moving."

'비 오는 날 소소리 같다(cow tail on a rainy day)'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는(at normal times) 쇠파라도 쫓을 수 있어 유용하지만(be useful), 비 오는 날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be good for nothing) 거 추장스럽지만 하다는(be cumbersome) 말이다. 하지만 이는 홍수에 떠내려 가더라도(be swept away by a deluge) 소소리만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소는 근육질 덩치에 느릿느릿 움직이는 육지 포유동물(be muscular and lumbering land mammal) 이어서 금세 물에 잠길 것 같지만 웬만해선 익사하는(be drowned to death) 경우가 드물다. 육중한 체구가 물에 뜨고, 수영을 한다는 게 신기하지만 타고난 본능과 능력(natural instinct and ability)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목동들이 소떼(herd of cattle)를 강 건너, 호수 건너 물이 깊어 방목할(put them out to pasture) 수 있는 것이다.

소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도 수영한다. 한 번에 50km 가까이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끼리의 코(trunk)가 원래 잠수 중에 물 밖으로 연결해 숨을 쉬는 자연 발생적인 관으로 진화한(evolve as a natural snorkel)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소는 물을 싫어하지 않는다. 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더위와 흡혈 곤충들(blood-sucking insects)인데, 물은 한꺼번에 두 가지 골칫거리를 해소해주기(get rid of both of them) 때문이다. 먹을 풀이 많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나, 체온을 식히고 물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in order to keep cool and avoid biting insects) 물에 몸 담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황폐화시키고(wreak havoc on the Bahamas)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다. 그런데 '도리안'이 휩쓸고 지나간 대서양 시더 아일랜드의 소들 중 3마리가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풀을 뜯고 있